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조 병 환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환경상태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은 경제성장 규모에 상응하는 환경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저조하고 또한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형태로 되어 있는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우기 '92. 6월에 개최되었던 UNCED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와 연계시키려는 Green Round의 열풍이 예견되고 있다. 이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관련 산업의 위축은 물론 환경기술개발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에 무역규제시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방향으로는 모든 산업개발정책 추진시 환경요인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추진되도록하며, UN 환경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5년 단위계획인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과 국제 환경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동 계획상의 주요 대책으로는 환경기준의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강화, 환경과학기술개발 추진, 산업구조 조정, 주요 상수원의 특별관리등 수질, 대기, 폐기물등 각 분야별 대책,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와 사전예방 환경행정을 양측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